

또래 놀이에 나타난 유아의 맥락 및 탈맥락적 언어사용

Use of Contextualized and Decontextualized Talk in Preschoolers' Peer Play

성미영(Miyoung Sung)*

Department of Child Studies, Seokyeo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low- and middle-income preschoolers' use of contextualized and decontextualized talk. The contextualized and decontextualized talk of 70 five-year-old children were analyzed by children's gender and their socioeconomic status. The participants, as dyads, participated in a peer play session for 10 minutes. The play sessions were videotaped and the videotaped data were transcribed. Each transcript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modified version of Curen-ton et al. (2008)'s coding schemes. Th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 from middle-income families engaged more in both contextualized and decontextualized talk than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Also, girls from middle-income families engaged in more contextualized-decontextualized talk(psychological states) than girls from low-income families.

▲주제어(Key Words) : 맥락적 언어(contextualized talk), 탈맥락적 언어(decontextualized talk), 또래 놀이(peer play)

I. 서론

유아기 탈맥락적 언어사용은 이후 문해발달의 핵심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C. E. Westby, 1991). 탈맥락적 언어(decontextualized language)는 지금-여기에서 일어나지 않는 가장(pretend), 이야기(narrative), 설명(explanatory talk)이 포함된 언어를 의미한다. 즉, 현재 상황이 아닌 상황과 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과거 또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달리 맥락적 언어(contextualized language)는 현재의 상황과 사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탈맥락적 대화에서는 주로 문법과 어휘 등의 구체적인 언어장치를 통해 의미가 전달되고, 이와 달리 맥락적 대화에서는 몸짓, 억양, 얼굴표정 등의 언어 외적 장치, 상황적

단서, 대화참여자의 공유지식에 의해 의미가 전달된다(A. D. Pellegrini, 1985; C. E. Westby, 1991). 맥락적 대화와 탈맥락적 대화는 모두 음성언어의 연속선상에 포함되는 대화유형이지만, 회상, 계획, 상상, 기억 등의 사고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탈맥락적 대화만이 학업성취나 문해발달의 토대가 된다(E. Reese, 1995). 이처럼 탈맥락적 언어는 현재의 맥락에 없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정신적인 표상 능력을 유아에게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유아기는 발현적 문해력이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이며(W. H. Teale & E. Sulzby, 1986), 유아기 이후 읽기 성취도의 전조 증상에 해당하는 글자 지식이나 음운 인식 역시 유아기에 명백하게 나타난다. 유아의 이야기 말하기에서 나타나는 문해적 언어특징의 사용은 이후 문해능력 발

*본 연구는 2012학년도 서경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Corresponding Author : Miyoung Sung, Department of Child Studies, Seokyeong University, 16-1 Jungneung-dong, Sungbuk-gu, Seoul 136-704, Korea, Tel: +82-2-940-7554, E-mail: minieming@empas.com

달의 핵심 지표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아기 탈맥락적 언어 사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S. M. Curen-ton & L. M. Justice, 2004). 또한 읽기발달이 빠른 유아의 경우 읽기발달이 늦은 유아에 비해 탈맥락적 언어수준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결과(R. G. Davidson & C. E. Snow, 1995)를 통해 볼 때, 유아기 탈맥락적 언어사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와의 대화상황에서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이 어머니에 의해 촉진된다는 결과를 보여준 연구(S. M. Curen-ton, M. J. Craig, & N. Flanigan, 2008)에서는 어머니와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을 이야기 상황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다른 상황에 비해 이야기 말하기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이 더 많았으며, 발현적 읽기 상호작용에서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발현적 읽기 상호작용은 다른 상호작용과 달리 유아에 의해 주도적으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는 이야기 상황에 해당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주도적으로 탈맥락적 언어를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경우에도 어머니와 유아 간의 대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유아가 자발적으로 탈맥락적 대화를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을 어머니와 같은 성인과의 대화 상황에서만 분석해 볼 것이 아니라, 유아기에 또래 관계가 급속하게 확장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유아와 유아 간의 대화 상황에서 개별 유아의 어떤 특성에 따라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아와 유아 간의 대화 상황에서 개별 유아가 보여주는 언어적 상호작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놀이 상황에서 유아가 어떤 놀잇감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언어적 상호작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S. K. Wanska, J. L. Bedrosian, & J. C. Pohlman,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유아 간 대화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언어적 상호작용 특징뿐만 아니라 탈맥락적 언어사용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탈맥락적 대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한 연구방법은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책읽기를 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탈맥락적 언어사용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책읽기 상황은 현재 눈앞에 없는 사물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어머니와 유아가 책의 정보를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탈맥락적 대화 연구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활용되었다(B. B. Rosenquest, 2002). 이외에도 과거 사건에 대해 어머니와 유아 대화 나누는 사건 회상의 방법 역시 탈맥락적 대화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방법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연구방법, 즉 책읽기 상황과 과거 사건 회상의 연구방법은 성인인 어머니에 의해 탈맥락적 언어 자극이 유아에게 주어지는 상황에서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즉, 유아의 자발적인 탈맥락적 언어사용 이라기보다는 어머니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으로써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탈맥락적 언어사용을 살펴보는 연구방법에 의해 유아의 탈맥락적 대화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어머니 간의 대화 상황이 아니라, 유아와 유아 간의 대화 상황을 연구방법으로 선정하고, 유아와 유아 간의 대화에 나타난 유아의 자발적인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유아의 언어발달이나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은 어머니가 제공하는 언어 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어머니가 유아에게 사용하는 탈맥락적 언어 역시 유아의 언어발달, 특히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부모의 탈맥락적 언어 자극과 유아의 어휘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M. L. Rowe, 2013)에 의하면, 부모가 과거나 미래 사건에 관한 이야기나 설명을 유아에게 더 많이 제공할수록 1년 후 유아의 어휘발달이 더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유아에게 제공하는 언어 자극이 유아의 어휘발달을 촉진시킴을 보여준다.

유아는 일상생활에서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사고를 발달시키고 의사소통 기술을 촉진시키는 기회를 가진다.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에는 중류층 유아에 비해 이러한 대화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화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D. K. Dickinson & C. E. Snow, 1987; L. Feagans & D. C. Farran, 1981). 유아의 언어발달과 관련된 어머니 언어의 특성은 대부분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저소득층 어머니는 중류층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하는 시간이 적으며, 자녀에게 말을 거는 횟수도 더 적다. 유아가 먼저 한 말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적으며, 유아를 대화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으로 아동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적다. 이러한 선행연구(D. C. Farran & R. Haskins, 1980; S. B. Heath, 1983)를 통해 볼 때, 저소득층 유아는 중류층 유아에 비해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상호작용을 경험할 기회가 더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저소득층 유아와 중

류층 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 경험 기회의 차이는 탈맥락적 언어사용에도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즉, 중류층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이 저소득층 유아에 비해 더 빈번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아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은 유아의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저소득층 가정의 어머니는 집에서 탈맥락적 언어에 노출될 기회가 별로 없어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일관된 연구 결과(B. Hart & T. Risley, 1992; S. B. Heath, 1994)를 통해 볼 때,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 역시 탈맥락적 언어에 노출될 기회가 중류층 유아에 비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유아기 남아와 여아 간의 성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어휘발달이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서 성차가 나타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의 경우에도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일부 연구(Y. Lee, J. Lee, & E. Shin, 2002)에서 만 5세 유아의 경우 놀이영역에 따라 가장놀이의 탈맥락화 수준에서 성차가 존재함을 보여주었으나, 유아기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성차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성차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에서 보이는 탈맥락적 언어사용의 특징이 유아의 성별과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문제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또래 놀이에서 유아의 맥락 및 탈맥락적 언어사용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또래 놀이에서 유아의 맥락 및 탈맥락적 언어사용은 성별 및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만 5세 유아 7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 유아가 사용하는 탈맥락적 대화가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유의표집 하였다.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연구대상을 표집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중 조사에 협조한 2곳의 어린이집, 중류층 유아의 경우 중류층 거주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중 조사에 협조한 2곳의 어린이집을 선정하였다. 저소득층 거주 지역 소재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 중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가정의 유아를 저소득층 유아로 선정하였고, 중류층 거주 지역 소재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 중 가정의 월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유아를 중류층 유아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평균 월령은 66.07개월, 소득수준별 구성은 저소득층 유아 36명(51.4%), 중류층 유아 34명(48.6%)이었고, 성별 구성은 남아가 36명(51.4%), 여아가 34명(48.6%)이었다. 중류층 가정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28명(82.4%), 중류층 가정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25명(73.5%)이었고, 저소득층 가정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0명(83.3%), 저소득층 가정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25명(69.4%)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또래와의 놀이상황에 나타난 탈맥락적 언어사용을 분석하기 위해 S. M. Curenton et al.(2008), S. M. Curenton and T. D. Lucas(2007), M. L. Rowe(2013) 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Table 1>과 같이 전체 발화를 맥락적, 맥락-탈맥락적, 탈맥락적 발화로 구분하였다. 먼저 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은 놀이설명 발화와 상호작용 유지 발화로 구분되는데, 놀이설명 발화는 현재 놀이상황에서 제시된 놀잇감과 놀이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 발화를 의미한다(예; 이거 너무 커, 냉장고야). 상호작용 유지 발화는 현재 놀이상황에서의 대화를 지속시키기 위해 사용된 승인, 명료화 요구 등의 발화를 의미한다(예; 맞아, 알았지?). 맥락-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은 정보연결 발화와 심리상태 발화로 구분되는데, 정보연결 발화는 현재 놀이상황에 제시된 놀잇감과 사건에 대한 정보를 실제 생활과 연결한 발화를 의미하고(예; 이거 우리 집에 있는 손가락 같은데), 심리상태 발화는 생각, 감정, 심리상태에 대한 발화를 의미한다(예; 빨강이 제일 좋아). 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은 행동평가 발화와 결과예측 발화로 구분되는데, 행동평가 발화는 의견이나 행동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 발화를 의미하며(예; 장난치지 마), 결과예측 발화는 행동이나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추론

Table 1. Criteria of Contextualized and Decontextualized Talk

	Content	Content
Contextualized talk	Play description	Utterances that give the child information about the play materials (ex; It's too big. This is a refrigerator.)
	Maintaining interaction	Utterances that maintain the flow of interaction (ex; That's right!)
Contextualized-decontextualized talk	Bridging information	Utterances that make connections to real world (ex; It seems to be the spoon like my own one.)
	Psychological states	Address a children's thoughts, feelings, or psychological states (ex; I like the red one.)
Decontextualized talk	Judging opinions	Utterances that make judgement about behaviors and opinions (ex; Don't disturb.)
	Predicting outcomes	Utterances that require making predictions and inferences (ex; Why does it too small?)

을 포함한 발화를 의미한다(예; 왜 이렇게 작은 걸까?). 아동학 박사학위 소지자 2인에 의해 전체 자료 중 10%의 발화에 대한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맥락적, 맥락-탈맥락적, 탈맥락적 발화 범주의 신뢰도는 .95로 양호한 편이었으며, 두 평정자간에 평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사된 자료와 녹화 자료를 근거로 합의하였다. 또한 연구도구의 내용타당도는 아동학 박사학위 소지자 2인과 어린이집교사 2인에 의해 검증되었다.

3. 연구절차 및 분석

또래 놀이에 나타난 유아의 맥락 및 탈맥락적 대화 내용을 비디오로 녹화하기 위해 연구자가 어린이집 4곳을 각각 방문한 후 동성 유아 한 쌍을 대상으로 놀이 과정을 촬영하였다. 동성 유아의 쌍은 사전에 담임교사의 협조를 통해 평소 상호작용이 원활한 또래 쌍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자가 유아들에게 놀이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소꿉 놀이에 필요한 놀잇감을 이용해 놀이를 하도록 하였으며, 놀이 도중 다른 유아나 교사의 개입은 없었다. 유아의 놀이 활동을 비디오로 녹화하고 녹화된 내용 중 처음 10분 동안의 발화를 전사하였으며, 전사된 발화를 맥락, 맥락-탈맥락, 탈맥락적 대화의 범주에 따라 부호화하여 그 횟수를 관찰표에 기록하였다. 전사 및 코딩된 자료는 SPSS 16.0 프로그램에 의해 통계처리 되었으며, 통계기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t*-검증, 이원변량분석이 이용되었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또래와의 놀이상황에 나타난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 사용의 전반적 경향

또래와의 놀이상황에 나타난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 사용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 유아가 사용한 전체 발화의 빈도는 25.17회(SD=23.06)였으며, 이 중 맥락적 발화는 18.43회(SD=16.64), 맥락-탈맥락적 발화는 3.44회(SD=4.27), 탈맥락적 발화는 3.30회(SD=5.38)로 나타났다. 전체 발화 중 맥락적 발화의 비율이 79.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맥락-탈맥락적 발화가 12.16%, 탈맥락적 발화는 8.19%로 전체 발화의 10% 미만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어머니와 같은 성인과의 대화상황이 아니라 동년배 또래와의 대화상황에서는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의 비율이 작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유아의 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놀잇감과 놀이행동을 설명하는 놀이설명 발화는 13.10회(SD=11.65), 현재의 대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상호작용 유지 발화는 5.33회(SD=6.32)로 나타나서 맥락적 발화 중에는 놀이설명 발화가 상호작용 유지 발화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발화에서 놀이설명 발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61.47%로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발화는 놀이설명에 관한 발화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유아의 맥락-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현재 제시된 사물과 사건을 실생활과 연결하는 정보연결 발화는 1.94회(SD=3.27), 유아와 또래의 생각, 감정에 관한 심리상태 발화는 1.50회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Contextualized, Contextualized-decontextualized, Decontextualized Talk (N=70)

Variables	Low-income			Middle-income			Total		
	Boys M(SD)	Girls M(SD)	Total M(SD)	Boys M(SD)	Girls M(SD)	Total M(SD)	Boys M(SD)	Girls M(SD)	Total M(SD)
Contextualized talk	7.83 (4.44)	8.61 (4.15)	8.22 (4.25)	27.11 (14.88)	31.63 (21.32)	29.24 (18.05)	17.47 (14.59)	19.44 (18.74)	18.43 (16.64)
Play description	6.78 (3.78)	6.83 (3.50)	6.81 (3.59)	17.56 (11.67)	22.25 (15.21)	19.76 (13.45)	12.17 (10.15)	14.09 (13.13)	13.10 (11.65)
Maintaining interaction	1.06 (1.39)	1.78 (1.44)	1.42 (1.44)	9.56 (5.79)	9.37 (8.06)	9.47 (6.84)	5.31 (5.99)	5.35 (6.74)	5.33 (6.32)
Contextualized- decontextualized talk	.78 (1.06)	.61 (.61)	.69 (.86)	6.39 (4.30)	6.31 (4.90)	6.35 (4.52)	3.58 (4.20)	3.29 (4.41)	3.44 (4.27)
Bridging information	.00 (.00)	.22 (.43)	.11 (.32)	4.56 (4.02)	3.13 (3.58)	3.88 (3.83)	2.28 (3.63)	1.59 (2.84)	1.94 (3.27)
Psychological states	.78 (1.06)	.39 (.52)	.58 (.84)	1.83 (2.09)	3.19 (2.66)	2.47 (2.44)	1.31 (1.72)	1.71 (2.32)	1.50 (2.03)
Decontextualized talk	.33 (1.19)	.06 (.24)	.19 (.86)	6.89 (7.51)	6.25 (4.44)	6.59 (6.18)	3.61 (6.26)	2.97 (4.34)	3.30 (5.38)
Judging opinions	.11 (.32)	.06 (.24)	.08 (.28)	4.00 (5.83)	2.88 (2.87)	3.47 (4.65)	2.06 (4.52)	1.38 (2.41)	1.73 (3.64)
Predicting outcomes	.22 (.94)	.00 (.00)	.11 (.67)	2.89 (3.31)	3.38 (2.90)	3.12 (3.08)	1.56 (2.75)	1.59 (2.60)	1.57 (2.66)
Total talk	8.94 (5.31)	9.28 (4.36)	9.11 (4.80)	40.39 (20.75)	44.19 (24.94)	42.18 (22.54)	24.67 (21.84)	25.71 (24.61)	25.17 (23.06)

Table 3. Percent of Contextualized, Contextualized-decontextualized, Decontextualized Talk (N=70)

Variables	Low-income(%)	Middle-income(%)	Total(%)
Contextualized talk	91.30	67.30	79.65
Play description	77.02	45.00	61.47
Maintaining interaction	14.28	22.30	18.18
Contextualized- decontextualized talk	7.70	16.90	12.16
Bridging information	1.52	10.33	5.79
Psychological states	6.18	6.57	6.37
Decontextualized talk	1.00	15.80	8.19
Judging opinions	.52	7.31	3.82
Predicting outcomes	.48	8.49	4.37
Total talk	100.00	100.00	100.00

(SD=2.03)로 나타나서 맥락-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정보연결 발화와 심리상태 발화의 횟수나 전체 발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행동이나 의견에 대한 판단을 포

함한 행동평가 발화는 1.73회(SD=3.64), 원인과 결과 추론을 포함한 결과예측 발화는 1.57회(SD=2.66)로 나타나서 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행동평가 발화와 결과예측 발화의 횟수나 전체 발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다.

1) 또래와의 놀이상황에 나타난 저소득층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의 전반적 경향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사용하는 탈맥락적 언어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 유아가 사용한 전체 발화의 빈도는 9.11회(SD=4.80)였으며, 이 중 맥락적 발화는 8.22회(SD=4.25), 맥락-탈맥락적 발화는 .69회(SD=.86), 탈맥락적 발화는 .19회(SD=.86)로 나타났다. 전체 발화 중 맥락적 발화의 비율이 91.30%로 놀이상황에서 나타난 발화의 90% 이상이 맥락적 발화였으며, 맥락-탈맥락적 발화(7.70%)와 탈맥락적 발화(1.00%)는 각각 전체 발화의 10% 미만에 해당하였다. 저소득층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나타난 이러한 경향성은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를 모두 포함한 전체 연구대상 유아의 경우와 동일하게 맥락적 발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전체 발화의 빈도는 전체 유아가 25.17회인 반면 저소득층 유아는 9.11회로 나타나 놀이상황에서 저소득층 유아의 발화량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 유아의 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놀잇감과 놀이행동을 설명하는 놀이설명 발화는 6.81회(SD=3.59), 현재의 대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상호작용 유지 발화는 1.42회(SD=1.44)로 나타나서 맥락적 발화 중에는 놀이설명 발화가 상호작용 유지 발화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 유아의 전체 발화에서 놀이설명 발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77.02%로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발화는 놀이설명에 관한 발화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 유아의 맥락-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현재 제시된 사물과 사건을 실생활과 연결하는 정보연결 발화는 .11회(SD=.32), 유아와 또래의 생각, 감정에 관한 심리상태 발화는 .58회(SD=.84)로 나타나서 맥락-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정보연결 발화와 심리상태 발화의 횟수는 평균적으로 1회 미만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전체 발화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낮게 나타났다. 저소득층 유아의 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행동이나 의견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 행동평가 발화는 .08회(SD=.28), 원인과 결과 추론을 포함한 결과예측 발화는 .11회(SD=.67)로 나타나서 맥락-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과 마찬가지로 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행동평가 발화와 결과예측 발화의 횟수 역시 1회 미만으로 적게 나타났다.

2) 또래와의 놀이상황에 나타난 중류층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의 전반적 경향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중류층 유아가 사용하는 탈맥락적 언어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중류층 유아가 사용한

전체 발화의 빈도는 42.18회(SD=22.54)였으며, 이 중 맥락적 발화는 29.24회(SD=18.05), 맥락-탈맥락적 발화는 6.35회(SD=4.52), 탈맥락적 발화는 6.59회(SD=6.18)로 나타났다. 전체 발화 중 맥락적 발화의 비율이 67.30%로 놀이상황에서 나타난 발화의 절반 이상이 맥락적 발화였으며, 맥락-탈맥락적 발화와 탈맥락적 발화는 각각 전체 발화의 16.90%, 15.80%로 나타났다. 중류층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나타난 이러한 경향성은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와 동일하게 전체 발화에서 맥락적 발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전체 발화의 빈도는 저소득층 유아가 9.11회인 반면 중류층 유아는 42.18회로 나타나 놀이상황에서 저소득층 유아의 발화량이 중류층 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중류층 유아의 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놀잇감과 놀이행동을 설명하는 놀이설명 발화는 19.76회(SD=13.45), 현재의 대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상호작용 유지 발화는 9.47회(SD=6.84)로 나타나서 맥락적 발화 중 놀이설명 발화가 상호작용 유지 발화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또한 중류층 유아의 전체 발화에서 놀이설명 발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45.00%로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발화는 놀이설명에 관한 발화임을 확인할 수 있다. 중류층 유아의 맥락-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현재 제시된 사물과 사건을 실생활과 연결하는 정보연결 발화는 3.88회(SD=3.83), 유아와 또래의 생각, 감정에 관한 심리상태 발화는 2.47회(SD=2.44)로 나타나서 맥락-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정보연결 발화가 심리상태 발화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류층 유아의 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행동이나 의견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 행동평가 발화는 3.47회(SD=4.65), 원인과 결과 추론을 포함한 결과예측 발화는 3.12회(SD=3.08)로 나타나서 행동평가 발화와 결과예측 발화의 빈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성별 및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

먼저 유아의 맥락적 발화의 경우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맥락적 발화($F=45.96, p<.001$)와 하위영역인 놀이설명 발화($F=31.68, p<.001$), 상호작용 유지 발화($F=46.29, p<.001$)에서 모두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류층 가정의 유아는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에 비해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맥락적 대화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며, 놀이 자체에 대한 설명이나 상호작용을 유지하기 위한 발화도 더 자주 사용하였다. 유아의 맥락-탈맥락적 발화의 경우 전체 맥락-탈맥락적 발화($F=52.72, p<.001$)와 하위영역인 정보연결 발

Table 4. Contextualized, Contextualized-decontextualized, Decontextualized Talk by SES and Gender (N=70)

Variables	SV	SS	df	MS	F
Contextualized talk	SES	7804.76	1	7804.76	45.96***
	Gender	122.19	1	122.19	.72
	SES×Gender	60.91	1	60.91	.36
	Error	11208.31	66	169.82	
Play description	SES	2994.10	1	2994.10	31.68***
	Gender	98.46	1	98.46	1.04
	SES×Gender	93.90	1	93.90	.99
	Error	6237.06	66	94.50	
Maintaining interaction	SES	1130.71	1	1130.71	46.29***
	Gender	1.28	1	1.28	.05
	SES×Gender	3.56	1	3.56	.15
	Error	1612.25	66	24.43	
Contextualized-decontextualized talk	SES	558.43	1	558.43	52.72***
	Gender	.26	1	.26	.02
	SES×Gender	.04	1	.04	.00
	Error	699.10	66	10.59	
Bridging information	SES	242.74	1	242.74	34.14***
	Gender	6.37	1	6.37	.90
	SES×Gender	11.92	1	11.92	1.68
	Error	469.31	66	7.11	
Psychological states	SES	64.82	1	64.82	20.94***
	Gender	4.07	1	4.07	1.31
	SES×Gender	13.26	1	13.26	4.28*
	Error	204.33	66	3.10	
Decontextualized talk	SES	709.36	1	709.36	36.59***
	Gender	3.67	1	3.67	.19
	SES×Gender	.57	1	.57	.03
	Error	1279.72	66	24.43	
Judging opinions	SES	196.37	1	196.37	18.40***
	Gender	6.08	1	6.08	.57
	SES×Gender	4.99	1	4.99	.47
	Error	704.47	66	10.67	
Predicting outcomes	SES	159.28	1	159.28	32.18***
	Gender	.30	1	.30	.06
	SES×Gender	2.19	1	2.19	.44
	Error	326.64	66	4.95	
Total talk	SES	19212.55	1	19212.55	72.66***
	Gender	74.50	1	74.50	.28
	SES×Gender	52.40	1	52.40	.20
	Error	17451.27	66	264.41	

*p < .05, ***p < .001

화(F=34.14, p<.001), 심리상태 발화(F=20.94, p<.001)에서 모두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류층 가정의 유아는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에 비해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맥락-탈맥락적 대화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며, 현재의 정보를 실제 생활과 연결하는 발화나 심리상태에 관한 발화도 더 자주 사용하였다. 한편,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의 맥락-탈맥락적

발화 중 심리상태 발화의 경우 유아의 성별과 가정의 소득수준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t검증을 통해 단순 주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심리상태 발화에서 여아의 경우에는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서 중류층 여아의 심리상태 발화 횟수(M=3.19, SD=2.66)가 저소득층 여아의 심리상태 발화 횟

Table 5. Boys and Girls' Psychological States by SES

(N=70)

Variables		n	M	SD	t
Boys	Middle-income	18	1.83	2.09	1.91
	Low-income	18	.78	1.06	
Girls	Middle-income	16	3.19	2.66	4.38 ***
	Low-income	18	.39	.50	

*** $p < .001$

수(M=.39, SD=.50)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t=4.38, p<.001$), 남아의 경우에는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심리상태 발화 횟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가 사용하는 탈맥락적 언어의 특징을 살펴보고, 유아의 성별 및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들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70명의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유아가 사용한 전체 발화 중 맥락적 발화의 비율이 약 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맥락-탈맥락적 발화 12.16%, 탈맥락적 발화 8.19%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상황과 사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맥락적 발화가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인 반면, 현재 상황이 아닌 상황과 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과거 또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탈맥락적 발화는 전체 대화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맥락적 발화의 경우 주로 놀잇감과 놀이행동을 설명하는 놀이설명 발화가 빈번하게 제시되었으며, 행동에 대한 평가나 결과에 대한 예측과 같은 탈맥락적 발화의 경우에는 평균 1회 정도로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어머니와 같은 성인과의 대화상황이 아니라 동년배 또래와의 대화상황이라는 점에서 설명해 볼 수 있다. 즉, 어머니와 같은 성인과의 대화상황, 특히 그림책 읽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화상대방인 어머니가 유아의 탈맥락적 발화를 촉진하거나 유도하는 발화를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 또한 촉진되었다(S. M. Curen-ton et al., 2008).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탈맥락적 발화를 유도하는 어머니와 같은 대화상대방(M. L. Rowe, 2013)이 아닌 동년배 또래와의 대화상황이라는 점으로 인해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의 비율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사용한 탈맥락적 발화의 경향성은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를 모두 포함한 전체 연구대상 유아의 경우와 동일하게 맥락적 발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전체 발화의 빈도는 전체 유아가 25.17회인 반면 저소득층 유아는 9.11회로 나타나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사용하는 발화량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맥락적 발화의 경우 놀이상황이나 놀잇감에 대한 설명이 약 80%로 나타났고, 탈맥락적 발화의 경우에는 행동평가나 결과예측 발화가 대화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보여 저소득층 유아는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탈맥락적 발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어머니의 경우 유아가 먼저 한 말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적으며, 유아를 대화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으로 유아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적다는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설명해 볼 수 있다(B. Hart & T. Risley, 1992; S. B. Heath, 1994). 즉, 저소득층 어머니의 이러한 언어적 특성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는 탈맥락적 언어에 노출될 기회가 더 적은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탈맥락적 언어를 사용할 가능성도 더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중류층 유아가 사용하는 발화량은 저소득층 유아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류층 유아 역시 저소득층 유아와 마찬가지로 전체 발화에서 맥락적 발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발화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다. 그런데 전체 발화에서 맥락적 발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저소득층 유아와 비교해볼 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중류층 유아의 경우 맥락-탈맥락적 발화, 탈맥락적 발화의 비율이 저소득층 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류층 유아가 사용한 맥락적 발화의 경우 놀이설명 발화가 전체 발화에서 절반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이 놀이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놀이설명에 관한 발화가 중류층 유아에게서도 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유아가 사용하는 발화유

형, 즉 맥락적, 맥락-탈맥락적, 탈맥락적 발화는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중류층 유아는 저소득층 유아에 비해 맥락적, 맥락-탈맥락적, 탈맥락적 발화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류층 유아는 저소득층 유아에 비해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 맥락적 대화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며, 놀이 자체에 대한 설명이나 상호작용을 유지하기 위한 발화도 더 자주 사용하였다. 저소득층 가정의 어머니는 집에서 탈맥락적 언어에 노출될 기회가 별로 없어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결과(B. Hart & T. Risley, 1992; S. B. Heath, 1994)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이 중류층 유아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나타난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의 차이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언어사용 특징과 관련지어 설명해 볼 수 있다. 유아는 일상생활에서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 기술을 축적시키는 기회를 가지는데,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에는 중류층 유아에 비해 이러한 대화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D. K. Dickinson & C. E. Snow, 1987; L. Feagans & D. C. Farran, 1981).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를 경우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유형 역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머니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언어유형에도 차이를 가져오게 되므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언어유형 역시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저소득층 유아는 중류층 유아에 비해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상호작용을 경험할 기회가 더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 경험 기회의 차이는 탈맥락적 언어사용에도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맥락적, 맥락-탈맥락적, 탈맥락적 발화에서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Y. Lee et al., 2002)의 경우 블록놀이와 조각놀이 영역에서는 남아의 가장놀이 탈맥락화 수준 점수가 더 높았으나, 극화놀이 영역에서는 반대로 여아의 가장놀이 탈맥락화 수준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놀이영역에 따라 가장놀이의 탈맥락화 수준에서 성차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Y. Lee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탈맥락적 언어사용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가장놀이의 탈맥락화 수준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유아기 가장놀이의 탈맥락화 수준에서는 성차가 확인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탈맥락적 언어사용의 경우에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탈맥락적 언어사용 관련 연구에서 연령차는 살펴보았으나 성차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드물어 후속연구에서는 유아기 탈맥락적 언어사용의 성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아의 발화유형 중 맥락-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심리상태 발화에서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으나, 유아의 성별과 가정의 소득수준 간에 상호작용 효과 또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의 경우에는 가정의 소득수준이 저소득층인지 중류층인지가 심리상태 발화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여아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수준의 차이가 심리상태 발화에서의 차이로 연결되어 나타나서 중류층 여아의 심리상태에 관한 발화의 정도가 저소득층 여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성별이나 소득수준과 같은 각각의 단일 변인보다는 이러한 변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발화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저소득층 유아만 분석하거나, 중류층 유아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등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탈맥락적 언어사용을 직접 비교하여 살펴보기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가 보이는 탈맥락적 언어사용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초등학교와 같은 환경은 탈맥락적 대화에서의 융통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환경이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탈맥락적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아동의 학업성취가 더 뛰어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 탈맥락적 언어사용이 중류층 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저소득층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을 활성화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이러한 중재프로그램에는 어머니와 교사가 유아의 탈맥락적 발화를 촉진시키도록 지원하는 언어전략을 포함시킴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L. Morgan & H. Goldstein, 2004).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먼저, 연구대상의 측면이다.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연령에 따른 탈맥락적 언어사용의 변화를 살펴보기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찾을 수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 3, 4, 5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연령차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연구방법에서의 한계를 가진다.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발화유형을 중심으로 한 분석과 더불어 문해적 언어 특징에 대한 분석(K. S. Greenhalgh & C. J. Strong, 2001)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탈맥락적 언어사용을 분석하기 위해 발화유형과 더불어 문해적 언어 특징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실시하여 유아기 탈맥락적 언어사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Curenton, S. M., & Justice, L. M. (2004). African American and Caucasian preschoolers' use of decontextualized language: Literate language features in oral narrative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35*, 240-253.
- Curenton, S. M., & Lucas, T. D. (2007). Assessing narrative development. In K. Phence (Ed.), *Assessment in emergent and early literacy* (pp. 377-432). San Diego, CA: Plural.
- Curenton, S. M., Craig, M. J., & Flanigan, N. (2008). Use of decontextualized talk across story contexts: How oral storytelling and emergent reading can scaffold children's development.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9*(1), 161-187.
- Davidson, R. G., & Snow, C. E. (1995). The linguistic environment of early readers.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0*, 5-21.
- Dickinson, D. K., & Snow, C. E. (1987). Interrelationships among prereading and oral language skills in kindergartners from two social class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 1-26.
- Farran, D. C., & Haskins, R. (1980). Reciprocal influence in the social interactions of mothers and three-year-old children from different socioeconomic backgrounds. *Child Development, 51*, 780-791.
- Feagans, L., & Farran, D. C. (1981). How demonstrated comprehension can get muddled in produ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18-727.
- Greenhalgh, K. S., & Strong, C. J. (2001). Literate Language feature in spoken narratives of children with typical language and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32*, 114-125.
- Hart, B., & Risley, T. (1992). American parenting of language-learning children: Persisting differences in family-child interactions observed in natural home environ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096-1105.
- Heath, S. B. (1983). *Ways with words: Language, life, and work in communities and classroom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ath, S. B. (1994). What no bedtime story means: Narrative skills at home and school. In B. B. Schieffelin & E. Ochs (Eds.), *Language socialization across cultures* (pp.97-124).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Y., Lee, J., & Shin, E. (2002). Young children's pretense themes, self-other relations, and decontextualization of pretend play in block, manipulative, and dramatic play areas. *Research in Education, 10*, 29-51.
- Morgan, L., & Goldstein, H. (2004). Teaching mothers of low socioeconomic status to use decontextualized language during storybook reading.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26*, 235-252.
- Pellegrini, A. D. (1985). The relations between symbolic play and literate behavior: A review and critique of the empirical literatur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5*, 107-121.
- Reese, E. (1995). Predicting children's literacy from mother-child conversations. *Cognitive Development, 10*, 381-405.
- Rosenquest, B. B. (2002). Infants and toddlers literacy-based planning and pedagogy that supports toddler language developm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9*, 241-249.
- Rowe, M. L. (2013). Decontextualized language input and preschoolers' vocabulary development. *Seminars in Speech and Language, 34*(4), 260-266.
- Teale, W. H., & Sulzby, E. (1986). Emergent literacy as a perspective for examining how young children become writers and readers. In W. H. Teale & E. Sulzby (Eds.), *Emergent literacy: Writing and reading* (pp. 7-27). Norwood, NJ: Ablex.
- Wanska, S. K., Bedrosian, J. L., & Pohlman, J. C. (1986). Effects of play materials on the topic performance of preschool children.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17*, 152-159.
- Westby, C. E. (1991). Learning to talk, talking to learn: Oral literate language differences. In C. S. Simon (Ed.), *Communication skills and classroom success* (pp. 334-357). Eau Claire, WI: Thinking Publications.

접수일 : 2014년 07월 08일

심사일 : 2014년 08월 07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9월 15일